

# “광주, 치유 통해 문학 세계화 모색”

### 이진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신임 회장 동인지 발간·문학기행 중점 사업 작가 작품 낭독회·토론회 등 추진 작가간 교류 기회 만들어 갈 것



“아시아사피 광주전남소설가협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당연히 우선적인 목표는 지역 문학 활성화에 있지요. 광주가 가진 상처와 아픔, 그리고 치유를 통한 역사적 의미 확장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지역 문학의 세계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는 것이 궁극적인 모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소설가협회(이하 소협) 회장이 이진(사진) 회장이 선임됐다.

올해로 등단 25년째를 맞은 이 회장은 “주변도 돌아보고 동료 선배 작가 심부름꾼 노릇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로 등 떠밀린 격”이라며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럴 만도 했다. 사실 문학단체 장은 그렇게 빛이 나는 자리도,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직책도 아니다. 더욱이 개성 강하고 자기 목소리 뚜렷한 작가들의 모임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광주 출신 이 작가는 지금까지 ‘장’, ‘꿈지를 위한 방법서설’ 등의 소설집과 장편 ‘하늘꽃 한송이, 너’, ‘하균, 불의 향기’ 등을 펴내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왔다. 평소 자신의 주장보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터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회장은 중점 사업으로 전임 집행부가 해온 동인지 발간, 문학기행 등을 꼽았다. “올해는 동인지

발간 후 북토크 형식으로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낭독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한다”며 작가들과 좀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학에 관심있는 시민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생각이다.

오는 25일-26일 고창과 김제, 군산 일대로 떠나는 문학기행(천변의 삶과 세상을 읽는 여행)에 작가의 가족, 친지들에게도 일정 부분 문호를 개방한 것은 그런 취지다.

이 회장은 “몇몇 회원들이 ‘동료작가 소설 읽기’를 매개로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원 간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소설을 텍스트 삼아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창작 활성화로 연계된다.

“지난해는 우리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독서 열풍 진작의 기회가 마련됐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전반적인 문학출판계의 ‘봄’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창작 활성화가 ‘독서인구 확대-출판 문화 부흥-충분한 발표 지면-좋은 작품 창작’이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다소 전망이 암울할 뿐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와 호흡하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작가들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요.”

공적인 영역의 작가가 아닌 사적인 작가로서 그의 ‘주요 업무’는 독서와 여행이다. “충분한 인풋이 의미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아무런 일상이 번잡해도 독서와 여행을 위한 시간은 최소한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때로 강의 요청에 응하거나 칼럼 등의 잡문을 쓰기도 하지만”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급급적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예술 장르 중 타 분야에 비해 문학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작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지역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우리 소설로 말하는 사람들이며 소설은 예술의 한 영역이니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으면 한다”는 말로 소협의 존재 이유를 예들려 말했다.

“회원들 각자 소설을 쓰는 이유와 목적, 비전 등이 다르겠지만 예술로서의 소설 창작이라는 기본값에 충실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 친구, 13세기 몽골에서 우정과 모험

### ACC 어린이극장, 다음달 3~4일 ‘아를을 깨물었을 때’ 공연



ACC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어린이공연 ‘아를을 깨물었을 때’가 펼쳐진다. 함께 공연을 개발한 몽골 국립인형극단 단원들과 인형의 모습. <ACC 제공>

몽골의 전통 과자 ‘아를’을 한입 깨우는 순간, 눈앞에 13세기 몽골의 궁궐이 펼쳐진다. 낮선 들판 위 두려움 속에서도 친구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세 아이의 성장 이야기를 만나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5월 3~4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어린이·청소년 공연 ‘아를을 깨물었을 때’를 선보인다.

공연은 현대의 공황에서 시작해, 몽골 전통 우유 과자 ‘아를’을 입에 넣는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개된다. 배경은 13세기 몽골. 불모로 잡혀와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고려의 왕자 ‘지우’와, 고려-몽골 혼혈이자 지우의 몸종인 소녀 ‘샤르’, 몽골의 궁주 ‘쿠틀룬’ 세 인물의 우정과 모험이 중심을 이룬다.

향수병에 시달리는 지우 왕자를 위해 ‘아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은 단순한 여정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내면을 그린다. 작품은 어린이 관객들에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은 ACC에서 발간한 동명 그래픽 ‘아를을 깨물었을 때’를 원작으로, 한국-몽골 수교 35주년

을 기념해 ACC와 춘천인형극제, 몽골 국립인형극장이 공동 개발했다. 원작에 한국과 몽골의 설화를 추가·각색해 양국의 문화적 색채를 녹여냈으며, 대사 없이 인형의 움직임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형극 형식으로 선보인다.

특히 인형극에 사용되는 인형을 제작한 몽골 국립인형극장은 1948년 설립된 유일한 국립 전문인형극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춘천에서 열리는 ‘제24회 국제유니마축회 & 춘천세계인형극제’에서도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몽골 문화와 한국 설화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작품이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여러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석 1만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노벨문학상 작가 ‘바르가스 요사’ 타계

### 권력에 저항하는 개인, 문학에 구원... ‘도시와 개들’ 등 대표작

13일(현지시간) 향년 89세로 영면에 든 페루 출신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권력에 저항하는 개인을 문학 속에 구현할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거침없이 권력에 맞선 투사였다.

1936년 3월 28일 페루 아레키퍼의 중산층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바르가스 요사는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서 자라다가 두 살이 되던 해 외교관 이던 할아버지와 함께 볼리비아로 이주했다.

청년 시절엔 페루로 돌아와 레온시오 프라도 군사학교에 다니다가 열여섯 살에 중퇴했고, 이후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생활했다. 문학과 법학을 전공한 그는 AFP 통신과 프랑스 국영 방송 기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에게 문학적 명성을 안긴 작품은 1963년 펴낸 첫 장편소설 ‘도시와 개들’(원제 ‘La ciudad y



los perros’)이다. 군사학교 재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은 폐쇄적인 사회의 부패와 위선, 폭력을 고발해 호평받았다.

‘도시와 개들’은 사회고발적이고 문제적인 내용

때문에 페루의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에 난색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1961년 완성한 원고 1963년 에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 책은 1966년 영문판(제목 ‘The Time of the Hero’)으로도 출간돼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나 페루에선 군사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1000여부가 소각되는 등 논란이 됐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밖에도 페루 국경 지역 병사들의 모습을 풍자함으로써 군부를 비판한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19세기 말 브라질의 광적인 종교 집단과 공화주의자 사이 분쟁을 다룬 ‘세상 종말 전쟁’, 흥등가를 배경으로 한 ‘녹색의 집’ 등 이달이 주목받는 작품을 발표했다.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명성을 쌓은 바르가스 요사는 1995년 스페인어권 최고 영예로 꼽히는 세르반테스 문학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노벨문학상을 거머쥐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바르가스 요사를 선정할 당시 “권력 구조의 도해적 완성, 개인의 저항과 봉기, 패배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묘사”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 공예시장 선도할 스타 공방 발굴

### 스타공예상품 개발지원사업... 22~23일 참여 공방 7곳 모집

지역 공방의 창의적 공예상품 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스타공예상품 개발지원’ 공모가 진행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공예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스타공예상품 개발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참여 공방 7개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번 공모는 공방의 기술과 디자인기업의 디자인이 접목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공예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개발에서부터 양산화단계까지를 아우른다.

희망 업체는 광주에 소재한 공방으로 전문디자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선정 사업자는 개발비, 양산화 지원금 등 총 2000만 원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컨설팅과 후속 마케팅 지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용모 원장은 “이번 공모는 공예시장을 선도할 스타 공방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시장 창출은 물론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